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4장 세 번째 일반 원리: 죄 죽이기는 영적 생명과 활력을 얻게 해준다

『죄 죽이기』 제4장 「죄를 죽이기 위한 세 번째 일반 원리」, 인쇄 67~73쪽

🧭 흐름 한눈에

앞의 두 원리는 이랬다. 생명을 얻으려면 죄를 죽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1원리). 죄를 죽이면 확실히 산다(2원리). 4장은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다룬다. 우리 영적 삶의 힘과 위로가 죄 죽이기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웬은 먼저 선을 긋는다. 죄 죽이기가 평안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헤만의 예). 위로를 직접 일으키는 원인은 양자됨과 칭의다. 그런데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는 죄 죽이기가 결정적이다.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하고 어둡게 만든다. 죄를 뽑아내면 은혜가 잘 자란다. 죄와 싸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그 진실함이 평안의 토대가 된다.

📜 절별 정리

📜 1. 세 번째 원리, 그러나 자동 보장은 아니다 (헤만의 예)

오웬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라는 것을 네 가지로 꼽는다. 힘, 위로, 능력, 평안이다. 누가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고 진지하게 물으면, 우리 대답은 결국 둘 중 하나다. 순종할 힘이 없다거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다는 것이다. 오웬은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죄 죽이기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다만 오해를 막으려고 곧바로 선을 긋는다. 죄 죽이기와 평안이 기계처럼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시편 88편의 헤만은 평생 죄를 죽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도 그가 받은 것은 두려움과 상처뿐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환난 겪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로

날에 오히려 자랑이 될 것이다. 평안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우리 몫은 평안에 이르는 수단을 성실히 쓰는 것이다.

1. 신자가 바라는 것: 힘, 위로, 능력, 평안
2. 이 모두가 죄 죽이기에 크게 달려 있음
3. 그러나 죄 죽이기가 평안을 자동 보장하진 않음
4. 헤만: 평생 싸웠지만 두려움과 상처뿐
5. 수단은 우리 몫, 평안은 하나님의 권한

> **시편 88편**
> 죄를 죽이며 살아도 평안 없이 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헤만의 예
>
> **시편 88장** [1]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3]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4]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6]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

> **이사야 57:18**
> “내가 그를 위로하리라” —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
>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 **이사야 57:19**
> 평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곧 새 창조의 역사로 주어진다
>
>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을 얻는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이다.”

📜 2. 위로의 직접 원인은 양자됨과 칭의다

오웬은 한 걸음 더 구분한다. 하나님이 생명과 활력, 담대함과 위로를 주시는 길에서 죄 죽이기는 “직접 원인”이 아니다. 위로의 직접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다. 영혼이 그 특권을 깨닫는 순간 위로와 담대함이 주어진다. 오웬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빌려 “새 이름과 흰 돌”이라고 부르는데, 곧 양자됨과 칭의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죄 죽이기는 위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아니다. 위로를 가로막는 정반대의 것(죄)을 치우는 수단이다.

1. 죄 죽이기는 위로의 직접 원인이 아님
2. 직접 원인: 양자됨과 칭의
3. 성령이 자녀 됨을 증언하실 때 위로가 옴
4. 죄 죽이기는 방해물을 치우는 수단

> **로마서 8:16**
>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자녀 됨을 증언하신다 — 위로와 담대함의 직접 근원
>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 **요한계시록 2:17**
> 오웬이 빌린 “흰 돌과 새 이름”의 그림 (본문에 장절 표시는 없음) — 양자됨과 칭의를 가리킴
>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3. 그래도 많이 좌우된다 —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한다

그러면 죄 죽이기는 위로와 상관이 없는가? 오웬은 아니라고 답한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에서는 영적 활력과 위로가 죄 죽이기에 크게 좌우된다. 죄 죽이기는 단지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영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다. 죽지 않은 죄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한다. 영혼을 약하게 하고, 영혼을 어둡게 한다. 먼저 약하게 하는 쪽이다. 다윗은 마음에 욕망을 품고 있을 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 “우러러볼 수도 없다”고 탄식했다. 오웬은 죄가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① 감정을 흐트러뜨린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의 방향이 무너지고, 욕망의 대상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결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밀려난다. 그러면 “주는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게 된다.

② 생각을 점령한다. 생각은 본래 영혼에 양식을 날라다 주는 일을 한다. 그런데 죄가 살아 있으면 생각은 육체가 원하는 것만 그럴듯하게 꾸며 마음에 들여온다. 때로는 말로 못 할 더러운 상상으로 그렇게 한다.

③ 실제로 의무를 방해한다.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쏟아야 할 힘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다. 야심 있는 사람은 출세를 위해 공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궁리하고, 정욕에 매인 사람은 헛된 것을 좇는다.

오웬은 죄 하나가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다 말하려면 강론이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1. 매일의 동행에서는 죄 죽이기가 결정적
2. 죽지 않은 죄: 영혼을 약하게, 어둡게 함
3. 감정 혼란 → 하나님 사랑이 밀려남
4. 생각 점령 → 육체의 양식만 나름
5. 의무 방해 → 힘이 엉뚱한 데로 샘

> **시편 38:3**
>
>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구[illegible]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편 38:8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 죄로 쇠약해진 영혼의 상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편 40:12

"우러러볼 수도 없다" — 죄가 하나님을 바라볼 힘마저 빼앗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요한일서 2:15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 욕망이 하나님 사랑을 몰아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3:17

마음을 닫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 — 같은 원리를 뒷받침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 4. 죽지 않은 죄는 영혼을 어둡게 한다 — 다른 처방은 소용없다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어둡게 만든다. 오웬은 죄를 먹구름에 비유한다. 영혼을 덮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각이 사라진다. 영혼이 위로가 될 생각들을 애써 모아도 죄가 금세 흩어 버린다. 안 전에서 말한 위로의 직접 원인(자녀 됨)을 느리지 못하게 만는 것이 바로

그러니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오웬은 반대 모습도 보여 준다. 욕망에 매여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시도한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 처방을 써 보기도 하지만 낫지 않는다. 호세아서의 에브라임과 유다도 자기 병과 상처를 알았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고침을 찾았고, 죄를 뉘우치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병을 아는 것과 바른 치료를 받는 것은 다르다.

1. 죄는 하나님 사랑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
2. 자녀 됨의 감각과 위로를 흩어 버림
3.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
4. 부르짖음·다른 처방만으론 낫지 않음
5. 병을 알아도 바른 치료 없인 못 나음

> **호세아 5:13**
> 에브라임과 유다가 병을 알고도 엉뚱한 데서 고침을 찾음 — 잘못된 처방의 예
>
>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 **호세아 5:15**
> “죄를 뉘우칠” 때까지 소용없었음 — 죄를 직접 다루는 것이 참 치료
>
>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 **로마서 8:16**
> (2절과 연결) 죄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자녀 됨의 감각을 가로막는다
>
>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 5. 죄를 죽이면 은혜가 자란다 — 정원과 약초 비유

두 번째 이유다. 죄 죽이기는 은혜의 가지치기다. 우리 영적 삶의 활력은 마음에 심긴 은혜의 나무가 잘 자라느냐에 달려 있다. 오웬은 정원 비유를 든다. 귀한 약초를 심어 놓고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약초는 살아 있어도 말라서 쓸모가 없다. 애써 찾아야 겨우 보이고, 찾아도 그게 맞는 약초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척박한 땅이어도 잡초를 계속 뽑아 주면 약초는 무성하게 자란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다. 성령의 은혜도 똑같다.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하면 믿음과 사랑과 열심이 남아 있기는 해도 시들어 죽어 간다. 마치 잡초에 덮인 게으른 사람의 밭 같다. 부패한 본성은 잡초가 자라기 좋은 흙이라 잡초는 날마다 새로 돋는다. 그래서 날마다 뿌리째 뽑아야 하고, 그럴 때 각 은혜가 제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춘다.

1. 죄 죽이기 = 은혜의 가지치기
2. 잡초 덮인 약초: 살아 있어도 쓸모없음
3. 소홀하면 믿음·사랑·열심이 시듦
4. 부패한 본성에선 잡초가 날마다 돋음
5. 날마다 뽑으면 은혜가 제 역할을 함

> **요한계시록 3:2**
>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 살아 있지만 죽어 가는 은혜의 상태
>
>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 **잠언 24:30-31**
> (오웬이 장절 없이 빌린 그림) 잡초로 덮인 게으른 자의 밭 — 돌보지 않은 마음
>
>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 6. 죄를 죽여야 진실함과 평안이 있다

토대다. 그러니 죄를 죽이지 않으면 평안도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죄를 죽이는 일은 영혼이 자기 자신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는 일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와 싸우는 그 자리만큼 신앙이 진짜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이 장 첫머리의 요약도 같은 말을 한다. 죄 죽이기는 “진정성의 최고의 증거”다. 그러니 평안은 죄를 덮어 두고 얻는 것이 아니다. 죄와 싸우는 자리에서 그 토대가 놓인다.

1. 죄를 안 죽이면 진실함의 증거가 없음
2. 진실함은 평안의 중요한 토대
3. 죄 죽이기 =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싸움
4. 그 싸움에서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남

> **(이 단락에서 오웬은 구절을 직접 들지 않음)**
> —

> **갈라디아서 5:17**
> (함께 읽을 구절)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 — 오웬이 말하는 “자아에 맞선 싸움”의 배경
>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영혼이 자아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저항하고 싸우는 것”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의 힘을 성령을 의지해 날마다 약하게 하고 끊어 내는 일.

죄악된 욕망(정욕, lust)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원하게 만드는 마음의 끌림. 성적 욕망만 가리키지 않는다.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

칭의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하나님의 대권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한 권한. 여기서는 평안을 주시는 권한을 말한다.

필수 조건(sine qua non)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조건.

은혜(들)
성령이 신자 마음에 심으신 믿음·사랑·열심 같은 영적 성품.

진실함(sincerity)
신앙이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상태.

마음의 지향성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방향과 질서.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위로의 직접 원인은 양자됨과 칭의,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다. 죄 죽이기는 그 위로를 막는 죄를 치우는 수단이다.
- 죽지 않은 죄는 감정·생각·의무를 흐트러뜨려 영혼을 약하게 하고, 먹구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 영혼을 어둡게 한다.
- 죄의 잡초를 날마다 뽑아야 믿음·사랑·열심이 자라 제 역할을 한다.
-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그 진실함 위에 평안이 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4편 ·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 · 죄 죽이기와 영적 활력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